

1/15/23

설교 제목: 고난의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8 장 1-27 절

잡히시다(마 26:47-56; 막 14:43-50; 눅 22:47-53)

(요 18: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 18:2)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절관주** 눅 21:37, 벰전 5:1

(요 18:3)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요 18: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 18: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요 18: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절관주** 시 21:12, 시 27:2

(요 18: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요 18: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요 18: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절관주** 딤후 1:12

(요 18: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 18: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다(마 26:57-58; 막 14:53-54; 눅 22:54)

(요 18: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요 18: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요 18: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마 26:69-70; 막 14:66-68; 눅 22:55-57)

- (요 18: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절관주** 마 26:58, 막 14:54, 마 26:3
- (요 18:16)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 (요 18:17)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절관주** 요 18:25, 행 12:13
- (요 18:18)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쥘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쥘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다(마 26:59-66; 막 14:55-64; 눅 22:66-71)

- (요 18: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 (요 18: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절관주** 요 7:26
- (요 18: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냐
- (요 18: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 (요 18: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 (요 18: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절관주** 요 18:13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마 26:71-75; 막 14:69-72; 눅 22:58-62)

- (요 18: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쥘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절관주** 마 26:69, 마 26:71, 막 14:69-72
- (요 18: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절관주** 요 18:10, 요 18:1
- (요 18: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14-16 장).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17 장).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살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곧 죽으심입니다.

고별 설교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안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요 18: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예수님이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생략하고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노출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위엄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감람산 안에 있는 겿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들러 기도하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요 18:2)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요 18:3)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소상히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을 죽게 한 주동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의 지도층 전체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고 담대히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당당하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당신이 바로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십니다.

권위와 위엄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체포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일을 하느라 기꺼이 체포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 18: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 18: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요 18: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시자 갑자기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연상하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 엎드려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찾고 있는 예수가 당신임을 재차 확인시키며 당신이 순순히 너희들을 따라 갈테니 대신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 18: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요 18: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공관 복음서인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자 제자들이 모두 혼비백산해서 도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절을 보면 제자들이 도망쳤다가 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 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죽는 대신 제자들을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치러야 하는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어 버렸습니다.

(요 18: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 18: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후에 제자들이 사역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자신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행 5:40)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행 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행 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요 18: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요 18: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요 18: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안나스는 AD 6-15년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왜 군병들이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바로 데려가지 않고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안나스가 전에 대제사장이었을 뿐아니라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므로 아직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신헤드린 회원들에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요 11: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요 11: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요 11: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안나스가 예수님께 두 가지에 대해 심문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대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교훈에 대해서 엿습니다.

안나스의 심문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 18: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요 18: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요 18: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 18: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요 18: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요 18: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드러내 놓고 세상에 다 말하였으니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며 대답하기를 거부하셨고 이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신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치욕스럽게도 하찮고 연약한 대제사장 집 여중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요 18: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요 18:16)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 18:17)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요 18:18)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요 18: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요 18: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요 18: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비단 베드로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셨건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위해 그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혼인 우리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두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려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까지 노심초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우리는 아랑곳없이 세상의 썩어질 이익만을 추구하느라 온 머리를 굴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영의 눈과 귀를 막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섬기며 삽니다.

세상을 이길 영적 능력이 없는 연고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여 이기려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에 대해, 쾌락에 대해, 육신적인 욕구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 3: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빌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